Entertainment p/21
여름 극장가 할리우드 강풍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22일 화요일 제3019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리디아 고 최연소 상금 기록

한-포르투갈 정상 '포어권' 국가 공동진출 협력 박근혜 대통령과 아니발 카바쿠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 신재생에너지, 관광 등 실질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포어권' 국가인 '포어사용국공동체(CPLP)' 본부가 위치한 나라인만큼 CPLP 공동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통상임금 확대 '판도라의 상자'로

한국 GM 상여금 포함 노조에 전격제의 파장

인건비 급격한 증가는 재계 투자걸림돌 우려

올 하반기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측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측에 전격 제시해 기업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된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은 기업입장에서는 투자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 임단협 '통상임금'으로 난항 예상

재계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은 지급을 의무화한 임금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작년과 유사하다' 40.7%, '비교적 원만하다' 13.0% 순이다.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 10개 중 8개 기업은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77.2%)'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복지수준 확대 요구(15.8%)',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요구(14.0%)', '노조의 정년연장 조기 도입 요구(12.3%)' 순이라고 답했다.

임단협 타결까지 소요 기간 전망에 대해 '3개월 이상'이 51.2%였고, '1~2개월' 29.3%, '예측불가능' 19.5%였다.

이행철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지만,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원화강세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는 등 우리 기업은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정년연장 등으로 인건비마저 급격히 올라가면 정부가 요청하는 투자 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필두로 노조 파업 예상

통상임금 문제로 당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자동차 업계다. 르노삼성, 한국GM 노조는 최근 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19년간 무분규 타결을 해온 조선업체 기록도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해 논란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됐다. 한국GM은 지난 17일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시행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안에 대해 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회사는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종은 특성상 야근과 특근이 많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수당이 덩달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계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반대해 왔다.

현대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도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이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일단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 등을 놓고 갈등이 빚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와 함께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태균 임의택기자 @metroseoul.co.kr

복귀안한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22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대구·부산·세종·제주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곳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방침을 뒤집고 18일에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계위원회 소집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군대 내무반에 침대가… 2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에서 열린 국방예산 현장체험에서 체험단이 침상 대신 침대가 갖춰진 신형 생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구속영장 6개월 연장

법원 "조직적 도피… 검찰 검거 의지 등 고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즉각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로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 늘어났다.

안 부장판사는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씨를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리얼 예능 수위 적절한가요?

기자 수첩
전 효 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윤리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작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리얼 방송은 점점 은밀해지고 있다. 사적 공간의 한계선인 방 안까지 카메라가 들어왔다. 연출자가 개입하거나 무인카메라만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연출로 진화하고 있다.

'포장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꾸준히 논란이 제기된다. 최근 SBS '룸메이트' 박민우가 졸음운전을 했고 아찔한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됐다. 시청자는 "리얼을 강조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비난했다.

이에 백정렬 CP는 메트로 신문에 "졸음 운전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며 "'룸메이트' 출연진이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KBS2 '1박2일'에선 MC몽·은지원의 흡연, 이수근의 불법 유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소변을 참는 행위 등이 그려졌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추사랑의 일본말을 오역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제작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의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역으로 추사랑의 순수함은 한 순간 욕심으로 둔갑했다. 육아 예능의 핵심인 아이의 순수함이 어른의 언어로 재해석되며 프로그램의 본질을 흐린 셈이다.

리얼 예능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나 편집을 거칠 수밖에 없는 '방송'이기도 하다. 선정적인 걸 부각해 시청자를 확보하겠다면 끝이 없는 구조다. 출연 연예인이 한 순간에 비호감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제작진의 선택과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가상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고 솔직함의 경계를 논의할 때가 온 듯 한다.

수도권 총력전 여야 대표 악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7.30 재보궐선거 유세현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위, 국장급 공무원 채용 첫 주관

금융위 대변인 등 3명 오늘 '나라일터'에 공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국장급 개방형 직위 공무원 채용을 처음으로 주관한다.

21일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 3곳의 공개 모집 계획을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에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금융위원회 대변인,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이다.

개방형 직위 선발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공직사회 혁신' 약속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 출범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으로 적격자를 선발, 소속 장관에게 임용 후보자를 복수(2~3배수) 추천한다. 해당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지원자를 채용해야 한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황교안 "권은희 관련 고발, 철저히 수사"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재개

●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이 2년7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21일 통일부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과 관련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방북 신청을 지난 18일 승인하고 남북 협력기금 2억7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성 육참 "GOP 총기 사건 자성해야"

●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21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GOP 총기 사건으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데 대해 총장을 비롯해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TF 재가동… 전권 부여

여야는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마친 후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TF 활동 상황과 양당의 입장, 유가족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 것을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며 "TF팀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자사고 정책에 집단 반발

교장협의회 모임…"재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2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일반고 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 지역 25곳의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축소 정책이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인식에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큰 오류가 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일반고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해 "매년 1억~3억원씩 5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청의 사탕 발림일 뿐"이라며 "중점영역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감이 주창하던 '평등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실시되는 2차 평가에서 '공교육 영향 평가' 항목이 추가된 것에 대해 "정상적으로 끝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다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심폐소생술 체험 사회복무요원과 국가근로장학생들이 21일 오후 성북소방서 주최로 열린 소방안전교육에서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다. /성북소방서 제공

뒷돈 챙긴 '철거반장' 공무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주는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서울 중구청 공무원 이모(51)씨와 김모(46)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중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하는 이른바 '철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와 브로커에게서 6차례에 걸쳐 100만~600만원씩 모두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건축물 지정을 해지해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정기자 jhj@

한쪽에선 "자사고 폐지" 촉구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서울 공대위' 소속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불안 여직원 성희롱… 해고 정당"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파견업체 여직원을 상습 성희롱한 직장 상사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삼성카드에 다니던 구모(4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 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된 후 1999년 2월 관련 법률에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징계 등을 규정했다"며 "(그런 법적 규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 행위가 단순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에 의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발령난 구씨는 회식 자리에서 파견업체 여직원 A씨를 성희롱한 뒤 회사 측으로 부터 해고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윤다혜기자 ydh@

근로자 모집 '학력 차별'도 금지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을 추가한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취업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며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김민준기자 mjkim@

통일기원 자전거 대행진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통일기원 DMZ 자전거 평화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기원하며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칠곡 계모' 징역 15년 추가 구형

친부도 7년…"죄목 20여 가지"

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게 아동 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이 더 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씨와 남편은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선고가 나면 항소심과 병합할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사교육 성행지역 학원 집중점검

교육부는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주요 입시·보습학원을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21일부터 한 달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의 대치동·목동·중계동·강동·부산해운대·대구 수성구·광주 서부·대전 서부·경기 수원·용인·분당·일산·경남 창원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이다.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교습행위 등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윤다혜기자

'피살 재력가 연루' 검사 감찰

대검, 휴대전화 등 관련자료 분석… 금주 내 직접 소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1일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해된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A 부부장 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A 검사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맡겨 통화와 문자메시지(SMS) 내역 등을 확인 중이다. 또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A 검사 등 관련자들의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운 송씨 아들 등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송씨 피살 이후 A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송씨가 A 검사에게 유럽 유학 장도금 명목 등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본부는 "수사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르면 주내 A 검사를 직접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송씨 아들 등 유족들도 불러 장부에서 A 검사 등의 이름을 삭제한 경위와 함께 A 검사와 송씨와의 구체적인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울부짖는 팔레스타인 어머니들. /로이터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희생자 500명 넘어

이스라엘 2주째 가자 공습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2주째 공습을 지속하면서 21일(현지시간) 오후 9시 20분 현재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512명에 달했다.

미국 CBS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만 가자에서 최소 31구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날 사망자 중에는 아동 4명과 생후 9개월된 아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17일 지상군을 투입한 뒤 가자에서 발생한 희생자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한 19일~20일 1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숨졌다. /조선미기자 seonmi@

조선왕릉 첫 항공방제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 산림청 항공관리본부와 함께 21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홍릉·유릉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조선왕릉 지역에 항공방제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왕릉관리소 제공

공무원 수사 즉시 직위해제 가능

남성도 육아휴직 3년… 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 아빠들도 산모와 마찬가지로 3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에 주력했다.

그동안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된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 연장,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준기자

장례업체 꽃·음식 재사용 여전

6개월간 14건 적발

경찰청은 지난 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조화 재사용 등 장례 업체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4건, 74억원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286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적발된 범죄 금액은 74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재 23건의 장례 업체 비리를 수사 중이다.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제단 장식꽃, 음식을 재사용한 인원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의 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은 71명, 5억원 규모였으며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도 2명이 검거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북 청주 시내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근조 3단 조화를 수거한 뒤 이를 재사용해 1개당 10만원을 받아 챙긴 청주 시내 화원 업주 7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총 2377회에 걸쳐 근조 조화를 재활용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유족에게 판매한 물품 가격의 20~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장례식장 운영자, 상조업체 지도사 등 75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돈은 4억4300만원에 달한다.

/조현정기자 jhj@

밀수입된 중국 농산물 서울 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처형 살해 암매장' 농구선수 징역 20년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32)씨가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윤다혜기자 ydh@

경희사이버대, 영어 연수 지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는 재학생 3인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2주간의 영어 연수를 떠났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선발된 재학생은 김효빈(20·13학번), 오경진(32·11학번), 정말심(40·11학번) 학우이다.

경희사이버대는 실질적인 영어구사 능력 향상과 국제감각, 전문지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외 어학연수 및 영어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미국학과 1학기 이상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 자기개발 및 문화체험, 미국 문화·역사 수업 등이 준비돼 있다.

북서울 중학교 자원봉사

서울시 도봉구는 지난 15일 북서울 중학교 학생들이 폐현수막을 이용한 파우치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 봉사는 학생들이 도봉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60년 거주 '토박이' 찾는다

서울시 중구는 구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되는 '중구 토박이' 신청을 오는 8월29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54년 10월1일 이전부터 중구에 거주한 사람이며 구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관악구, 농촌체험 프로그램

서울시 관악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관악산 야외식물원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촌체험은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metro Russia

подоидет новыи аттракцион – флайборд. Он похож на доску для сноуборда, только меньше размер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 гидроциклом мягким шлангом, через который подаётся напор воды. В доске имеются два отверстия, через них и проходят мощные водные стру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можно летать. Это настоящая мечта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фильмов про супергероев. Чувствуешь себя эдаким водным бэтменом.

Специ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не требуется. Инструктаж проходит на месте. Главные правила: за буи не заплывать, над инструктором не летать и, если тебя перевернуло на спину, не пытаться встать, а перекатиться на живот. Вы получаете гидрокостюм, шлем, спасательный жилет и погружаетесь в воду. Для полёта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ждать солнечной погоды. Экипировка хорошо защищает от холода.

С первого раза, конечно, не получилось. Только удалось попробовать на вкус Финский залив. Однако, когда понимаешь, как балансировать, начинаешь получать удовольствие. Флайборд подходит даже для тех, кто боится высоты.

«Некоторым нравится летать под дождём».
Андрей Капитонов
управляющий станцией проката FlyJets

ОЛЬГА СОЛГАЛОВА

Новый аттракцион на Крестовском уже полюбился многим петербуржцам

metro Brazil

Em 5 meses, PM matou 136 em confrontos

Violência. Número se aproxima do total registrado em 2013, quando policiais militares em serviço mataram 151 pessoa

Dados do Instituo Sou da Paz, com base em números divulgados pela Secretaria de Segurança Pública, apontam que o número de pessoas mortas no Estado por PMs (policiais militares) aumentou muito nos cinco primeiros meses do ano. Entre janeiro e maio, foram 136 casos. O número já está perto do registrado pela secretaria em todo o ano passado, quando 151 pessoas morreram em confrontos.

Nos outros municípios da Grande São Paulo, o aumento no número de mortes em confrontos foi ainda tidade de homicídios dolosos (com intenção) na capital caiu 8% nos cinco primeiros meses do ano, na comparação com o mesmo período do ano passado. Segundo balanço da SSP, foram 467 assassinatos entre janeiro e maio deste ano, ante 507 do mesmo período de 2013.

Segundo o Instituto Sou da Paz, é preciso investigar os casos para entender os motivos do aumento no índice de letalidade da PM e adotar medidas efetivas para combatê-lo.

A Secretaria de Segurança Pública informou, em

Números

136
é o número de mortos por PMs em serviço na capital entre janeiro e maio.

151
é o número de mortes em confrontos com a PM em todo o ano passado.

브라질 경찰 과잉 대응 논란

브라질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최근 5개월 동안 총 13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평화가 좋아요' 협회가 공공안전국의 자료에 기초발표에 따르면 최근 5개월 간 군경에게 살해된 사람은 13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기록이 15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개월 간 136명이 살해 당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metro Mexico

a chatarra ntil en TV

정크푸드 TV광고 규제

앞으로 멕시코 텔레비전에서 정크푸드 광고를 보기 어려워졌다. 멕시코 정부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멕시코 보건부의 새 정책에 따르면 탄산음료, 과자 등 고칼로리 식품 광고는 제한된 시간에만 전파를 탈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정크푸드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물 위를 날으는 슈퍼맨 되어볼까?

이색 수상 스포츠 '플라이보드' 인기… 물보라 맞으며 시원한 여름나기 만끽

최근 러시아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단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이색 수상 스포츠 '플라이보드'가 인기다.

플라이보드는 스노우보드와 비슷한 크기의 익스트림 스포츠 기구다. 보드에 부착된 호스로 물을 유입, 이때 발생하는 엄청난 수압으로 사용자의 몸이 물 위로 떠오르게 만든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 강에서 플라이보드를 운행중인 드미트리 마케예프는 "수심 5㎝의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플라이보드를 탈 수 있다"며 "플라이보드는 속도감과 함께 시원한 물보라를 맞을 수 있어 여름 스포츠로 제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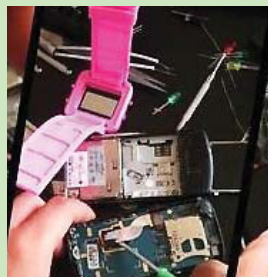
그는 "평소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플라이보드를 꼭 타봐야 한다"며 "물 위를 나는 슈퍼맨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플라이보드 동호회 관계자는 "플라이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탈 수 있는 것"이라며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에 빠지더라도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라. 플라이보드 위에 배를 대고 엎드리는 행위 등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플라이보드를 탈 때 수트를 착용하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탈 수 있다"며 "빗속을 신나게 날아다니는 플라이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 일리야 구바레프는 "핀란드 만에서 플라이보드를 처음 탔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짜릿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구바레프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며 "올여름에도 플라이보드를 타고 멋지게 날 생각이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으니 많은 시민이 플라이보드 타기에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가 솔가로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 Kong

여친 생일 선물로 '스마트 워치' 제작 고교 남학생 눈길

중국 남학생이 여자친구의 선물로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워치'를 만들어 화제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양즈후이(楊志輝). 그는 여름방학에 여자친구의 열여섯번째 생일 선물로 스마트 워치를 만들어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양즈후이는 동네에 있는 노점에서 5위안으로 전자손목시계를 하나 샀다.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170위안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세 대를 구입해 부품을 분해했다. 3주간의 개발, 조립, 테스트 과정을 거치자 그가 만든 스마트 워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계는 5MB(메가바이트)이하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작동시킬 수 있다. 시계가 멈추면 뒷면의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교체하면 된다. 그는 스마트 워치에 여자친구가 자주 사용하는 앱을 미리 설치해 뒀다.

양즈후이는 200위안도 안 되는 돈으로 만든 스마트 워치의 전 제작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최근 설명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스마트 기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인터넷 스타로 떠올랐다.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로 스마트 워치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몇몇 네티즌은 부러움을 표했다.

양즈후이는 평소 시간이 날때면 혼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 기술을 공부한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기술자'를 자처하며 달려가 도움을 준다. 그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는 게 꿈이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2018.50 (-0.92)

코스닥 561.75 (+1.49)

금리(국고채 3년) 2.52 (변동 없음)

환율(원·달러) 1027.50 (-2.50)

T전화 공식 홈페이지 SK텔레콤은 All-IP기반 통화 플랫폼 'T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인 'T전화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제공

국민 91.58% 도시 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상 전 국토의 면적은 10만6106㎢이다.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593㎢로서 이는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14만여명 중 4683만여명이 도시지역(91.58%)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 용도지역(10만6106㎢) 중 농림지역 4만9403㎢(46.6%), 관리지역 2만7093㎢(25.5%), 도시지역 1만7593㎢(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2017㎢(11.3%)다.

또 도시지역 1만7593㎢(16.6%) 중 녹지지역 1만2683㎢(72.1%), 주거지역 2580㎢(14.7%), 공업지역 1122㎢(6.4%), 미지정지역 884㎢(5.0%), 상업지역 325㎢(1.9%)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45만5660명(경기도 평택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83만7578명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5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탁기자 kimdt@

삼성·LG전자 "백색가전도 힘낸다"

글로벌 시장서 호평…하반기 전망 밝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백색가전'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21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가 발표한 '2014 HD TV·세탁기·주방기기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삼성전자 제품 6개, LG전자 제품 3개가 1위에 올랐다.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 제품은 50인치 이상 및 50인치 미만 HD TV, 드럼세탁기, 프렌치도어 냉장고, 가스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이다. 반면 LG전자는 프렌치도어 냉장고, 건조기, 일반 냉장고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삼성 HD TV는 50인치 이상 부문에서 884점, 50인치 미만 부문에서는 857점을 기록해 1위를 석권, 전 세계 TV 시장을 주도하는 1위 제조사로의 명성과 실력을 입증했다. LG전자는 50인치 미만 HD TV부문에서는 854점을 받으며 1위 삼성을 바짝 쫓았다.

드럼세탁기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828점을 받았다. J.D.파워는 삼성전자 드럼세탁기가 작동성, 편의성, 디자인, 기능성, 가격 등 5가지 요소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 드럼세탁기는 820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가스오븐레인지와 전자레인지도 작동성과 기능성 부분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으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프렌치도어 냉장고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월풀이 817점으로 공동 1위를 나타냈다.

LG전자는 건조기와 일반 냉장고 부문에서 각각 817점, 80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디자인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IDEA'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들이 여러 부문에서 수상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가 생활가전 부문 제품 중 은상을 차지했다. 본체 디자인을 북미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좁고 긴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한 '모션싱크 업라이트'는 동상을 받았다.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WW9000' 역시 동상을 수상하며 디자인에서도 창의성,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셰프컬렉션 풀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LG전자 역시 에어워셔 제품이 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더블매직스페이스' 냉장고와 살균스티머 제품이 은상을 수상했다. LG전자의 '웹OS스마트 TV인터페이스', 공기청정기 제품은 동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으로 차별화된 제품 리더십을 입증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도 제습기 등 에어솔루션 시장이 급성장하고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생활가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며 "부정적인 환율 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우리 쌀 간식 많이 드세요 농협쌀박물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쌀박물관 앞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로 만든 간식 먹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쌀가루를 이용한 간식문화를 확대해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뉴시스

연중 최고점 돌파는 다음 기회에…

코스피, 장중 2030선 찍고 기관 매도로 밀려

코스피가 2030선대를 찍으며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웠으나 기관의 매도 공세에 막혀 2020선 밑으로 뒷걸음질쳤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2포인트(0.05%) 하락한 2018.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2028.02로 출발해 장중 2030.61까지 오르며 지난 17일 기록한 연중 고점 2025.41을 넘어섰다.

외국인이 닷새째 순매수세를 잇는 가운데 개인도 '사자'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점차 기관이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장막판 보합권 혼조세가 나타나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구글, IBM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호조에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박근혜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배당 유도책 등 내수 활성화 정책 기대감도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다. 전기가스가 2% 넘게 올랐고 증권, 건설도 1%대 강세를 보였다. 금융, 기계, 통신, 의료정밀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운수장비, 운수창고가 1%대 하락했고 화학, 음식료, 비금속광물, 서비스 등이 줄줄이 약세를 나타냈다.

개별종목으로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74% 오른 135만3000원에 종가를 기록했다. 한국전력(3.04%), KT&G(1.83%) 등 내수주가 강세를 보였고 신한지주(1.55%), 하나금융지주(1.20%), KB금융(0.14%) 등 금융주도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2.15%), 현대모비스(-2.28%), 기아차(-0.54%) 등 자동차주가 나란히 약세를 보였다.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주는 일제히 1~4%대 낙폭을 기록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22년 뒤 2명이 노인 1명 부양

앞으로 22년 뒤면 일하는 사람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가 올해 5.26명에서 2036년이면 1.96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21일 전망했다.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1950년 15.79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1997년 9.83명으로 처음 10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감소해 2016년(4.94명) 5명 선, 2022년(3.81명) 4명 선, 2027년(2.89명) 3명 선, 2036년 2명 선이 차례로 붕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하락세는 OECD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올해 5.26명(3위)에서 2036년 1.96명(30위)으로 22년간 3.30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2036년 한국보다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가 적은 나라는 일본(1.56명), 독일(1.64명), 이탈리아(1.74명), 네덜란드(1.93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국명기자 kmle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허니문 Honeymoon 주말상담회

예비신랑 예비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던킨 도너츠
공평 갤러리
하나투어 본사 2층
삼성생명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피자헛
종각역

허니문 주말상담회 일시
2014년 7월 26일(토요일)

허니문 주말상담회 장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 2층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EVENT 01 하나투어 마일리지 40만 마일리지 지급!

EVENT 02 면세점 5만원 선불카드 교환권 지급!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발 고객)

BEST 01

괌 ★ 전일정 호텔식 5일
쉐라톤 라구나 스윗룸
1,985,200부터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괌(4)
- 최고급 허머리무진 시내관광 및 야경투어
- 커플당 50만원 할인혜택
- 최고급 앙사나 스파 30분 포함, 미니바 1회 오픈

BEST 02

하와이 ★ 반자유 6일/7일
힐튼 하와이안빌리지
2,627,100부터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하와이(4/5)
- 레인보우 오션뷰 무료 룸 업그레이드
- 쌍당 50만원 할인혜택, 와이켈레 프리미엄 아울렛 포함
- 하와이 추천 스팟투어 및 맛집투어 포함

BEST 03

이태리 ★ 로마가이드 7일/8일
세미팩-피렌체/베니스 자유여행
2,836,600부터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이태리(5)
- 준특급 4성급 호텔
- 이태리 전문 가이드와 함께 로마 전용차량으로 관광
- 로마→프렌체→베니스 열차 2등석 포함

BEST 04

보라카이 ★ 세일링 보트 5일
가든리조트-프리미어룸
1,465,000부터
▶매주 일,월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 보라카이(3)
- 아일랜드 호핑투어 포함
- 사전예약 쌍당 30만원 할인
- 피로를 풀어줄 황제 마사지(약 70분 포함)
- 공동경비 포함, 보라카이섬을 둘러보는 버크카 1시간 포함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는 포함입니다.(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기사경비] 현지에서 지불해야하는 필수 경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상담팀 02) 2127-1234

HNT 하나투어

2기 경제팀 증시 정책, 배당 유도에 '집중'

최경환호 주중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주중 부동산 활성화와 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배당 유도용 '사내유보금 과세안'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지수 개발 등에 분주하다.

새 경제팀은 기업이 내부에 쌓아둔 현금이 투자·배당 등의 형태로 증시에 흘러들 수 있도록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은 예상되는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 궁극적으로 배당 수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봤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과거(1991~2001)에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과세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다"며 "이 제도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당시 없어진 제도가 이번에 부활을 예고하면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외국인 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 소득이 가계로 들어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재계와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배당 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의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참석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배당과 임금 등으로 가계로 흘러간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과세 체계를 디자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인천 남동공단의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도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제도는 상장 전 우리사주를 사들인 직원들이 상장 후 주식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기간에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볼 경우,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말한다.

직원들의 손실만 보전해준다는 측면에서 일반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 배당 등 주주친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한편 정부의 2기 경제팀 출범과 맞물려 한국거래소는 하반기 새로운 배당지수와 배당 신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내놨다.

거래소는 올해 안으로 고배당지수와 우선주지수 등 새 배당지수를 개발해 배당주 투자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후속 개발할 전망이다.

또 배당 우수법인을 선정해 포상하거나 상장수수료·연부과금을 면제하는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다각도의 경기 부양책으로 침체된 한국 경기의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국내 경제에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해변은행' 이용하세요

금융권, 휴가철 고객잡기 나서

은행권이 여름 휴가철과 방학 시즌을 맞아 다양한 서비스로 휴가철 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변은행을 운영한다. 다음달 8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 이동점포를 설치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한다. 해변은행에는 2대의 현금입출금기가 설치되고 직원 2명이 상주한다. 현금 입출금은 물론 계좌이체, 송금, 상담까지 일반 영업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에도 문을 연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 17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씨티카드 프라이빗 비치'를 운영한다. 씨티카드 고객에게 파라솔과 선베드, 비치바 무료 이용, 휴대폰 무료 충전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박물관교실'을 연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견학과 함께 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경제 강좌, 화폐관련 소품만들기 등 강좌와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는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캠프'도 연다. 청소년 경제캠프에서는 사례중심의 금융분야 강의, 체험형 경제교육, 경제문제 토론, 현장 견학 등을 한다.

신한은행은 초등학생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한국금융사박물관에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친 교육프로그램과 체험, 전시설명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회차별로 25명씩 참가 가능하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국회의장, 경제5단체장 회동 정의화 국회의장과 경제5단체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경총회장 직무대행, 정우택 정무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의화 국회의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갑윤 국회부의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연합뉴스

지폐 속 숨은 그림 찾기 21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제5회 세계화폐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확대경으로 지폐 속 숨은 그림과 미세문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54개국의 화폐가 인물, 자연, 문화유산 등으로 구분돼 전시된다. /연합뉴스

"경제 하방리스크 커지고 있다"

최경환-이주열 첫 만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첫 만남을 갖고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아침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두 사람은 내수와 수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불균형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앞으로 자주 만나 경기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에게 "기획재정부 경제팀과 한국은행은 경제의 양 축이 아니겠느냐"며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자주 만나서 경제 인식을 나눠야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은행과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전반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1시간여의 회동을 마치고 나온 이 총재는 "경제를 보는 시각이 최 부총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준금리의 '금' 자도 꺼내지 않았다"면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장병화 한은 부총재 등 두 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부총리-총재뿐만 아니라 간부와 직원들도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고 협력하기로 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 커머스·배달 앱 뛰어드는 통신업계

KT, 위메프서 로밍서비스 판매
LG유플러스는 '철가방'과 제휴

'데이터 로밍 3000원 할인 선착순' 'T로밍 35% 할인 원플러스원 행사'.

휴대폰 대리점의 광고물이 아니다. 소셜 커머스에 올라온 통신 상품 소개글이다.

통신사의 이색 행보가 늘어나고 있다. 통신업계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다. 과거 순수 IT 서비스 위주로 사업을 해온 것과 달리 업종의 벽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KT는 로밍 서비스를 소셜 커머스에 입점시켰다. KT는 위메이크프라이스와 손잡고 21일부터 사흘간 '데이터 로밍 무제한 1일 이용권' 부가 서비스를 3000원 할인한 8000원에 판매한다. 앞서 KT는 앱 공동구매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소셜 커머스 리워드 앱 '앱팡'을 출시하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휴가철 여행객들이 여행상품을 소셜 커머스에서 주로 구입하는 현상에 주목했다"면서 "수요에 부응하고자 데이터 로밍 무제한 상품을 소셜 커머스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소셜 커머스 나들이는 KT뿐만이 아니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그루폰 제휴를 통해 T멤버십 고객 대상의 자체 소셜 커머스 '초콜릿'을 운영하고 있다. 초콜릿은 통신 부가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공연 티켓 등 문화·레저 상품을 판매한다. SK텔레콤 회원은 T멤버십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시기 LG유플러스도 '딩동'이란 위치 기반 소셜 커머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했지만 출시 3년 만인 지난 4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수익성 악화가 큰 원인이었으나 갑작스런 사업 철수로 입점 기업과 고객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 소셜 커머스를 접은 LG유플러스는 최근 배달 앱 후발 업체 '철가방'과의 제휴를 통해 배달 주문 시장에 뛰어들었다. LG유플러스는 배달 앱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해 관련 통신 상품 판매에 활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코오롱 여름문화축제 코오롱그룹의 문화예술나눔공간인 스페이스K(과천 코오롱그룹본사 로비)가 '2014코오롱여름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전했다. 'INFINITY(인피니티): ∞'라는 제목으로 이날부터 9월 12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코오롱그룹 제공

페이스북에서 바로 '구매'하세요

미국 중소기업과 시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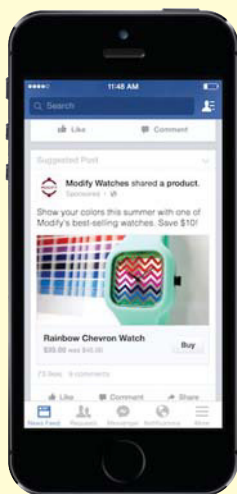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광고 효과는 물론 구매 편의성까지 높인 새로운 기능인 '구매' 버튼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8일부터 데스크톱과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구매 버튼 기능을 미국 중소기업과 함께 시험 중이다.

가장 큰 특징은 구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 대신 페이스북 내에서 구매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고객의 거래가 종결될 때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정보가 다른 광고주와 공유되지 않는 등 사생활 보호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시험기간 동안 사용자들과 기업들의 반응을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이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광고주는 페이스북 광고의 매출 증대 효과를 설문조사나 사이트 유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출에 직결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아마존 등 쇼핑사이트가 아니라 페이스북 내 제품 리뷰를 읽으면서 구매가 가능해진다.

/서승희기자 ssh814@

국내 아이디어 상품, 중국 수출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 아이디어 상품의 중국시장 수출 지원에 나섰다.

미래부는 국내 중소기업과 개인 창의 아이디어 상품의 중국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카페24, 알리바바그룹,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온라인 실크로드, 중국 시장 수출 전략 세미나'를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와 아이디어 한류', '한류 상품의 글로벌 유통허브 Kmall24', '카페24 글로벌 서비스',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공 사례'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미래부, 카페24, 알리바바그룹, 무역협회는 창조경제타운 등의 우수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 알리바바, Kmall24 마켓 입점을 전담해 지원하는 유통 멘토링 체제를 갖춰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들의 창의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진공원리를 이용한 신개념 위생파리채, 안심 요일 약병, LED 불빛공, 얼굴인식 보안 단말기 등 다양한 창의 상품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이들 상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목 미래부 차관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창의 아이디어 상품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할 때 창조경제 실현이 더욱 앞당겨 질 것"이라며 "창조경제 주역인 중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의 아이디어 제품화, 마케팅,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류 창의 상품의 중국 시장 진출 협력을 다지기 위해 중소상공인, 벤처·창업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영기자 ljy0403@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12종 발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4~25일 개최된 '2014년 스마트미디어 X 캠프'를 통해 12개의 새로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발굴, 상용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미디어X캠프는 미디어 분야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획안을 갖고 있는 중소개발사와 벤처기업들이 플랫폼사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손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매칭하는 행사다.

지난달 열린 행사에서 60여개 중소개발사와 벤처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12개의 신규서비스가 최종 매칭돼 연말까지 사업화가 추진된다. 이번 사업화를 통해 기업들은 향후 약 1274억원의 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영기자

기념사하는 우챈 알리바바그룹 해외사업부 사장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중국시장 수출 전략 세미나에서 우챈 알리바바그룹 B2C 해외사업부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료전지 주력사업으로 키운다"

두산, 퓨얼셀파워 이어 클리어엣지파워 인수

두산이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 업체인 퓨얼셀파워와 합병추진을 결정했다. 또 건물용 연료전지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클리어엣지파워(ClearEdge Power)의 자산과 영업부채를 3240만 달러에 인수하고 두산퓨얼셀 아메리카를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두산은 거의 동시에 이뤄진 합병 추진과 인수를 통해 건물용과 규제 대응용(규제용) 연료전지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퓨얼셀파워와 합병이 완료되면 주택용을 포함한 원천기술 풀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인수 합병하는 두 회사의 기술력에 두산의 비즈니스 역량을 더해 시너지를 높이는 동시에 연구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연료전지 사업을 향후 두산의 주력사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사의 동시 인수·합병은 기술·시장측면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두산측은 기대했다. 향후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는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규제용 연료전지 시장이 확대되는 한국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고, 퓨얼셀파워는 미국 주택용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또 양사는 양산기술과 R&D(연구개발)에서 노하우를 공유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잉여현금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 기회를 꾸준히 물색했다. 두산이 주력할 연료전지 시장은 건물용, 규제용, 주택용 시장이다. 지난해 세계시장 규모는 1조8000억원. 시장 전문 기관에 따르면 이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8년 5조원, 2023년 4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리어엣지파워는 건물용 연료전지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태균기자 ksgit@

투싼ix 후속은 '리틀 싼타페'

인트라도 디자인과도 비슷

올해 말 공개돼 내년부터 시판될 현대차 투싼ix 후속(TL)이 미국에서 카메라에 잡혔다.

3세대로 진화한 투싼ix 후속은 이번에 위장막이 상당 부분 제거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앞모습은 싼타페가 떠오를 만큼 닮았다.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카 '인트라도'의 디자인과도 비슷하다.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한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은 싼타페와 특히 비슷하다.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루프 라인과 높아지는 벨트라인 역시 싼타페와 닮았다. 차체는 구형보다 전반적으로 커졌다.

현대 인트라도 콘셉트카.

엔진 라인업은 유럽의 경우 1.6 GDi, 1.7 CRDi, 2.0 CRDi 등 3가지가, 미국에서는 2.0 GDi, 2.4 GDi가 유력하다. 한국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0 디젤 엔진이 주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바퀴굴림과 4륜구동이 마련되고 연료전지차는 개발이 마무리 되는대로 라인업이 추가된다.

투싼ix(LM)는 1세대 투싼(JM)에 이어 2009년 8월에 데뷔했다. 마이너 체인지 된 뉴 투싼ix는 2013년 5월에 공개돼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다. 올해에는 2만1768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14.6% 포인트 증가했다. 현대차는 올가을 파리 모터쇼나 연말 LA 모터쇼에 투싼ix 후속을 공개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 시판에 나설 예정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바캉스와 잘 어울리는 시원한 '상그리아 와인' 21일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모델들이 바캉스 시즌을 맞아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마시는 '마드리아 상그리아'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中企 성장위해 상속세 등 개선"

상의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공제' 개선 건의

경제계가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가족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정부·국회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올해초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영구화 등 가업승계지원제도가 개선됐지만,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요건이나 한도 등으로 체감효과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연부연납 특례 확대적용 등을 요청했다.

우선 "인구고령화로 가업상속 시기가 늦어져 발생하는 '노노상속(老老相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자녀에게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기에는 지원 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 도입한 이 제도는 가업승계목적의 주식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증여이후, 부모사망시 기간제한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정산한다. 그러나 도입 이후 7년째 30억원의 최대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나노스·카카오·해성옵틱스·경동원·휴롬

'1000억 벤처 클럽' 가입

나노스·카카오 등이 '1000억원 벤처 클럽'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21일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발표한 '벤처 1000억원 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 기업 6만9801개 가운데 지난해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선 기업은 454개다. 이는 전년(416개)보다 9.1%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000억원 클럽'에 새로 가입한 벤처는 56개로 나노스(2160억원), 카카오(2108억원), 해성옵틱스(1828억원), 경동원(1751억원), 휴롬(1560억원) 등이다.

전체 순위로는 코웨이가 1조9337억원으로 수위에 올랐다. 팬택(1조3356억원), 넥슨코리아(1조2522억원), 네이버(1조2235억원), 모뉴엘(1조1410억원) 등 8개 벤처가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1000억원 클럽' 벤처가 올린 전체 매출액은 10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1%를 차지했다. 총 고용 인원은 16만6164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업체당 평균은 366명이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기업보다도 좋았다.

매출액 증가율(12월 결산법인 441개사 분석)이 8.2%로 대기업(0.6%)이나 중소기업(4.6%)보다 높았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평균 6.9%로, 대기업(4.6%)이나 중소기업(4.2%)을 웃돌았다.

창업 이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8년으로 전년(17년)보다 0.2년 단축됐다. 통신기기·방송기기가 10.8년으로 가장 짧았던 반면 음식료·섬유·(비)금속은 20.3년으로 가장 길었다.

◆벤처 탄생 신화는 주춤

1000억원 벤처의 증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벤처는 2005년 78개에서 2011년 381개로 9년 만에 6.7배 늘어났다. 하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7년 49%에서 지난해 9.1%로 떨어졌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2000년 씨앗을 뿌린 벤처 육성 정책이 결실을 보았으나 이후에는 획기적인 벤처 정책이 나오지 못했다"며 "우수 인력이 끊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아파트 '유명 디자이너 작품' 대열 속속 합류

기술력 평준화, 수요자 끌기 위한 외관경쟁 치열
세계적 디자이너 참여, 국내 정서에는 안 맞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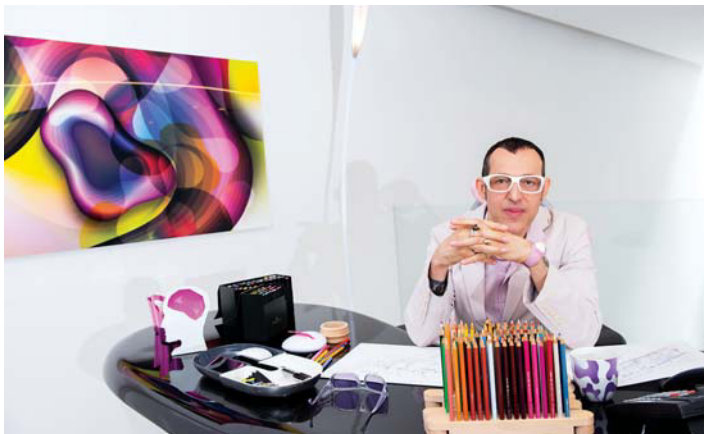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영입, 아파트 설계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수요자들의 집을 고르는 안목이 높아진데다, 도시 미관을 고려하는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건설사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아파트도 디자인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심 최고급 랜드마크 주상복합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던 유명 디자이너의 설계가 일반아파트는 물론, 지방의 상가에까지 속속 적용되고 있다.

세종시 1-4생활권 H1블록에서 반도건설이 분양 중인 '세종 반도 유보라'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꼽히는 카림 라시드와 공동으로 단지 상가인 '카림 애비뉴'를 디자인했다.

카림 라시드는 파리바게트, 현대카드 블랙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i40, LG 디오스 냉장고, LG 하우시스 하이막스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디자이너다. 세종시 최초의 스트리트형 상가에 카림 라시드 특유의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아이에스동서가 선보인 '더블유(W)'의 설계와 디자인은 세계적 건축가이자 프랑스 건축가협회장인 로랑 살로몽 교수가 맡았다.

로랑 살로몽은 부산 국제 설계 공모전 당선을 통해 더블유 설계를 진행하게 됐다. 고층부는 하늘로 열린 게이트를, 각 동은 물결치는 파도를 형상화해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뒀다.

반도건설 '세종 반도유보라' 상가인 '카림 애비뉴' 디자인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카림 라시드.

경기도 하남미사지구에서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에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거장 '알렉산드로 멘디니'가 아파트 외관 색채디자인과 사인물 디자인에 참여했다. 멘디니는 세계적인 명품인 까르띠에, 스와로브스키 등의 디자이너로 활동한 인물이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공급한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은 스캇 사버(Scott Saver)와 협업해 차별화된 외관 설계를 선보였다. 스캇 사버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일산 킨텍스 컨벤션센터, 서울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다만 겉모습에만 치중해 실용성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G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안방 욕실 벽 전체가 통유리로 만들어져 초기 입주민들 사이에서 국내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A주상복합아파트는 원통형으로 지어져 차별화된 외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데드스페이스(Dead Space)가 많고, 가구 배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같은 조건이라면 외관이 예쁜 아파트가 경쟁력도 높겠지만 실용성이 떨어진다면 좋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수요자들은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입지·상품·가격 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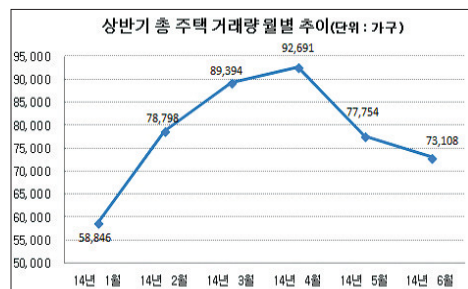
현대건설, '재해예방 집수리로드' 발족 현대건설이 지난 1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으로 수해취약 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로드'를 발족, 다음달 1일까지 14일간 집수리 봉사활동 실시한다. /현대건설 제공

상반기 주택거래, 작년보다 6.83%↑

올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여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전국 주택거래량은 총 47만59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44만 44만522가구와 비교해 3만69가구, 6.83% 늘어난 수치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지역으로, 작년 9만5562가구에서 올해 11만5850가구로 2만288가구 늘었다. 이어 ▲서울 1만2900가구(5만5842→6만8742가구) ▲부산 4916가구(3만6815→4만1731가구) ▲인천 3237가구(2만5981→2만9218가구) ▲울산 2446가구(1만2641→1만5087가구) 순이다.

이에 반해 대구는 작년 상반기 3만1139가구에서 올 들어 2만5912가구로 5227가구 감소했다. 다음으로 ▲경북 4493가구(2만8740가구→2만4247가구) ▲전남 2103가구(1만3652→1만1549가구)씩 줄었다.

올 상반기가 작년에 비해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취득세 영구 인하 확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대거 시행됨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26대책에 전·월세 과세 방안이 포함되면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5~6월 들어서는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택 거래량을 월별로 살펴보면▲1월5만8846가구 ▲2월 7만8798가구 ▲3월 8만9394가구 ▲4월 9만2691가구 ▲5월 7만7754구 ▲6월 7만3108가구로 4월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다 5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건물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가 32만9660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6만2804가구 ▲단독 4만8483가구 ▲연립 1만5882가구 ▲다가구 1만3762가구 순이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부가 전세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데다, 대출규제 완화가 예정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소득 증가 없이 부동산시장만 회복되기는 어려운 만큼,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거래량 증감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여름 분양 비수기는 '옛말'

청약자 몰리며 열기 '폭염' 수준

7~8월은 장마와 휴가철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폭염 수준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 정부가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수요자들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25개 단지, 1만1907가구(특별공급 제외)에 총 7만1609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는 지난달 34개 공급 단지에서 집계된 6만6874명을 넘어선 숫자다.

위례신도시, 김천혁신도시, 원주혁신도시 등 인기 지역에서 이달 말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양 성수기로 불리는 5월의 청약자 수 8만7459명도 넘볼 수 있을 전망이다.

분양성적도 좋았다. 25개 단지 중 15곳이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총 청약자의 85.8%에 달하는 6만1501명이 '진성 고객'으로 꼽히는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였다.

특히 지방에 비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수도권에서 6곳 중 4곳이 순위 내 마감된 점이 눈에 띈다. 이 중 대림산업이 경기도 광주에 분양한 'e편한세상 광주역'에 무려 2386개의 1~2순위 청약통장이 몰리며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7월에는 대구·경북, 부산, 천안, 세종 등 소위 잘 나간다는 지방을 비롯해 서울에서는 강남세곡2보금자리, 용산 등 알짜 입지에서 분양이 많아 결과가 좋았다"며 "다음 달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8월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인기 지역에서의 분양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A2-8블록에서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13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 가구 98㎡ 중형으로 구성됐고, 트랜짓몰과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이 가깝다.

한화건설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재건축한 '정릉 꿈에그린'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52~109㎡, 349가구 가운데 14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299만원 수준으로 인근 돈암동·길음동과 비교해 저렴한 편이다.

우남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행정타운 인근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용인 역북 우남퍼스트빌'을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5년이 경과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7~84㎡, 전체 914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주진동 일대에서 '양산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총 623가구,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이다. 양산에서는 EG건설이 '양산신도시1차 EG the1' 도 공급한다. 전용면적 59㎡, 415가구 규모다.

/박선옥기자

터치만하면 거실이 콘서트장…

꼼꼼 IT 리뷰

■ 필립스 스마트 조명 '휴'

감동적인 뮤지컬을 보고 나면 한동안 귓가에 뮤지컬 넘버가 맴돈다.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에서 무대가 조명으로 시시각각 바뀌는 장면도 좀처럼 잊기 어렵다.

가수들의 콘서트장도 마찬가지다. 감미로운 노래와 함께 황홀한 원색의 조명이 무대를 수놓을 때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공연장의 무대를 아름답게 포장했던 바로 그 조명. 이제는 집이나 회사에서도 환상적인 '조명발'을 누릴 수 있다.

필립스의 LED 스마트 조명 '휴' 덕이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앱으로 조명 밝기나 색상 등을 컨트롤하는 방식이다.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휴 앱을 내려받면 이 앱이 휴 전용 브릿지를 스스로 검색하고 해당 기기와 램프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공연장에서는 조명과 연결된 전용 버튼을 누르거나 스위치를 올리고 내려야 하지만 '휴'에서는 손가락만 터치하면 램프의 조도와 조명 색상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다.

이 제품이 매력적인 것은 외부개발자들이 만든 120개 이상의 앱과 호환된다는 점이다.

특정 음악을 틀어놓으면 비트나 리듬에 따라 조명 색상과 조도가 바뀌는가하면 심장박동 등 생체 리듬과 연동해 거실 분위기를 바꿔주는 앱도 있다.

최근에는 알람 기능도 생겼다. 앱에 기상 시간을 입력하면 때맞춰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뜨지 않고는 못배기는 현란한 조명 효과를 연출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클럽 버금가는 조명발을 누리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도 쓸모가 있다.

슬림한 디자인과 동급 최고 성능의 조도와 수명을 지녀 일반 램프로 써도 된다.

다만 브릿지를 포함한 전구 3개가 들어간 패키지 가격이 27만9000원으로 다소 비싼게 흠이다.

스마트폰과 앱만 있으면 우리집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어주는 LED 조명 '휴'. 모처럼 반가운 녀석을 만났다. /박성훈기자

우버 없애도 제 2,3의 우버 나온다

택시와 공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우선

issue&view
차량 공유앱 논란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한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우버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일종의 콜 택시 서비스로 자가용 차가 있는 사람과 차를 타야하는 사람을 조건에 맞게 연결해준다.

국내의 경우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사용하며 에쿠스, 벤츠, BMW 등 최고급 모델을 배치한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큰 짐이 있으면 트렁크에 직접 넣어주는 등 서비스가 강점이다.

요금은 기본 5000원이며 ㎞당 1500원이 부과된다. 미터기를 끊는 택시와 달리 위성항법장치(GPS)로 거리를 계산해 과금한다.

요금은 모범택시보다 비싸지만 심야할증이 없어서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이나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우버가 택시사업자의밥그릇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21일 우버 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우버는 태생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즉 택시사업자가 아니면 돈을 받고 자가용에 사람을 태워줄 수 없다는 얘기다.

우버코리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지만 개인이 렌터카를 직접 계약해 운전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 사고 시 보험료나 치료비를 받기 어렵다는 게 치명적이다.

최근 블룸버그와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해외 유력 언론들은 우버의 기업가치가 2000억달러(206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도요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다. 구글은 지난해 2억5000만 달러를 우버에 투자했고 올해 15억 달러를 추가로 펀딩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가 스마트시대에 맞는 대표적인 앱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이 서비스를 좀 더 보완해서 내놓는 것은 어떨까. 관계 당국도 택시 업계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우버와 택시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우버를 친다고 해도 택시사업이 호황을 누리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버의 사업 방식상 제2, 제3의 우버가 쏟아질 것이다.

화제 동영상을 한번에 '올펀존' KT미디어허브의 모바일TV 서비스 올레tv모바일이 큐레이션 서비스 '올펀존'을 출시한다고 21일 전했다. 올펀존은 온라인 화제 동영상들을 한 데 모아 무료로 제공한다. /KT미디어허브 제공

올 상반기 동영상 키워드 'SMART'

곰TV, 소비 패턴 분석 5대 트렌드 선정

곰TV가 올 상반기 동영상 콘텐츠 키워드로 '스마트(SMART)'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곰TV는 이용자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스낵컬쳐(Snack culture), 모바일 영상소비 증대(Mobile), 성인 대상 콘텐츠(Adult contents), 맞춤형 추천서비스(Recommendation service), 특화 콘텐츠(Targeted contents) 등 5가지 소비 트렌드를 선정했다.

올 상반기에는 출퇴근 시간 등을 이용해 3~5분 내외의 동영상을 스낵처럼 가볍게 즐기는 스낵 컬쳐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곰TV 앱에서 매일 방송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편집해 제공하는 '3분 TV'의 경우 조회수가 7월 현재 지난 4월 대비 50% 이상 상승했다.

LTE 속도전쟁으로 동영상 재생 속도가 빨라지면서 곰TV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영상소비도 작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 애니메이션, 예능 콘텐츠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바쁜 직장인들의 시간을 덜어 줄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영화를 즐기는 트렌드도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 특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도 늘었다. '출발 비디오 여행'을 패러디한 '출발 VOD 여행', 게임캐스터가 예능과 게임을 접목시킨 '이긴 뇌우스'와 같은 자체제작 콘텐츠는 서비스 1주일만에 조회수 10만 건을 돌파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여행 사진 노하우 알려드려요"

올림푸스-온필, 블로거 강좌

다가온 휴가철 여행 사진을 보다 멋지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올림푸스한국은 필리핀 여행 전문 브랜드 온필과 함께 다음달 6일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 본사에서 여행 사진 블로그 강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일상생활이나 여행에 필요한 사진 촬영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는 일반 유저가 대상이다.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기종과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이미지 유통사 게티 이미지 전속 스톡 사진작가인 '우쓰라' 김 경우씨가 강사로 참여한다.

이번 강좌는 사진 찍기부터 사진 보정하기, 글쓰기·블로그 운영하기 등 4회로 구성된다. 매 회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올림푸스 제품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과 강좌 내내 올림푸스 카메라·렌즈 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좌를 모두 수료하면 엠블럼 수료증을 준다.

강좌 신청은 온필 홈페이지(www.onfill.com)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올림푸스한국 홈페이지(www.olympus-imagi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온라인몰, 큐레이션 커머스 서비스 강화

다양한 상품에 피로한 고객에 맞춤 추천

온라인몰들이 '큐레이션 커머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큐레이션 커머스란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전시·기획하듯 특정 분야 전문가 등이 직접 제품을 골라 할인된 가격에 파는 것이다.

온라인몰에서는 너무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기 어렵다. 반면 큐레이션 커머스는 온라인몰에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제품을 제시해 쇼핑의 피로감을 줄인다는 데 장점이 있다. 또 최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기 화면 안에 적은 수의 상품만 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큐레이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SK플래닛의 오픈마켓 11번가는 큐레이션 커머스 플랫폼인 '쇼킹딜'의 명칭을 '쇼킹딜11시'로 변경하고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 '쇼킹딜 2.0'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쇼킹딜11시의 가장 큰 특징은 동영상 서비스다. 모바일과 홈쇼핑이 결합된 형태로 제품 정보를 집중도 높은 1~2분 내 짧은 동영상으로 제공해 의류의 질감부터 가전제품의 성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쇼킹딜11시는 본래의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별·연령 분석을 통해 소비자별 최적화된 상품을 제안한다. 큐레이션 커머스가 모바일에 최적화된 쇼핑 수단인 점을 반영해 여행·문화·외식 등 무형상품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롯데닷컴은 기존 식품 카테고리에 국한됐던 'MD가 간다' 기획전을 최근 유아동 카테고리까지 확대한 '엄마 MD가 간다'를 열고 있다. 자녀가 있는 엄마MD가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내 아이가 사용할 상품을 제안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11번가 제공

캐리어와 백팩을 직접 사용해보고 있는 MD와 그 자녀. /롯데닷컴 제공

이 기획전에서는 지난 30일부터 6일까지 물티슈를 판매한 데 이어 7일부터 13일까지는 아동용 캐리어와 백팩을 선보였다. 실제로 물티슈의 경우 이 기획전에서 상품을 선보인 후 전주 동기와 비교해 판매가 59% 증가했다.

옥션은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제품을 추천하는 기획전을 벌인다.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베이비페어'를 열고 3년간 유아동 판매데이터와 육아전문 커뮤니티를 근거로 국민유아용품을 선정해 할인 판매한다. 육아로 시간에 쫓기는 유아동 상품고객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큐레이션된 상품을 보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유아·출산용품을 전문으로 파는 '베이비플러스' 모바일 서비스도 선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유아동 쇼핑고객을 위해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홍대에서 문 연 첫 소주 팝업스토어 하이트진로는 21일 대표 제품인 참이슬을 활용한 소주 최초의 팝업스토어 '이슬포차'를 홍대 '이진칸'에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매장에서는 다양한 믹싱주와 안주류 이외에 매주 금요일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주말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홍대 주차장거리(어울마당로 45)에서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운영된다. /하이트진로 제공

강강술래, 내달 10일까지 '알뜰 바캉스대축제'

전국 휴가지까지 직접 배송 시스템 실시
육류·간편식 포장상품 최대 40%↓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고객들이 알뜰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 육류세트 및 가정간편식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바캉스 대축제'를 벌인다.

전 매장과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행복세트(한우불고기1kg+돼지양념1kg)와 사랑세트(한우불고기1kg+LA갈비900g)는 4만원, 정성플러스세트(한돈양념1kg+돼지양념1kg)는 4만5000원, 실속플러스세트(한우불고기1kg+한돈양념1kg)는 4만8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왕양념갈비(2대·560g)와 술래양념(8대·520g), 한우불고기(1kg)로 구성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메이징세트도 8만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세트메뉴 5종 모두 휴가지까지 택배를 통해 직접 배송해준다.(배송비 3000원 추가·도서산간 별도 문의)

전 매장에서는 영양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은 테이크아웃 가공식품 전 품목을 40% 할인 판매한다. 갈비맛쇠고기육포(6봉)는 2만1600원, 한우사골곰탕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 1만8900원,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2400원에 판매한다.

칠칠한우떡갈비(360g)는 1만2000원,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 7200원, 모짜렐라돈가스(720g) 1만800원, 통등심돈가스(720g) 9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행사기간 동안 전 매장에서는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뉴하이트 맥주를 한 병 시키면 한 병을 더 주는 '열대야 극복 1+1 이벤트'도 진행된다.

/정영일기자 prms@

야쿠르트, 평택 다목적 플랜트 완공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선도" 종균 생산·개발 한 번에

한국야쿠르트가 본격적으로 분말형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한국야쿠르트는 21일 경기도 평택에 다목적 프로바이오틱스 플랜트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새로 완공된 다목적 프로바이오틱스 플랜트는 직접 개발한 유산균 원료를 자체 생산한 후 제품까지 만드는 국내 최초의 일괄 프로바이오틱스 통합 생산 시스템이다.

총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연간 액상농축 유산균은 8만400ℓ, 분말 유산균은 최대 15톤 규모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한국야쿠르트는 이를 통해 액상형뿐만 아니라 분말형 건기식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발효유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하지만 현재는 비발효유 제품,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역시 그동안 주로 액상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출시했으나 내년 초부터는 이 플랜트 시설을 활용해 생산한 분말형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혁수 한국야쿠르트 대표는 축사를 통해 "종균의 생산부터 제품의 개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통합 시스템은 한국야쿠르트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내 최초의 프로바이오틱스 플랜트 준공을 계기로 한국야쿠르트는 자체 생산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제품에 바로 사용하고 이 제품을 자체 냉장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해 기능적 차별성과 신뢰감을 높여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산균 발효를 넘어 분말형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다양한 제형과 맞춤형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혁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국야쿠르트 임직원들과 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식, 프로바이오틱스 종균 접종식, 생산설비와 실험실 견학 등의 행사를 했다.

/평택=정혜인기자

행사에 참석한 김혁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국야쿠르트 임직원들과 관련 교수들이 테이프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혜인기자

모기·진드기 비켜!… 벌레 막는 아웃도어 패션

방충 가공 팬츠·레인재킷 등 '안티버그' 기능성 제품 눈길

각종 전염병을 옮기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기·진드기 등 각종 벌레는 여름 휴가철 불청객이다.

실제로 지난해 살인진드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국내)은 17명이었다.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만 전 세계에서 매년 100만명에 달한다. 피서지와 해외여행 시 해충의 피해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21일 아웃도어 업계에 따르면 야외활동이 잦은 휴가철을 맞아 각종 벌레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버그(Anti Bugs)' 아이템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트레킹 전문 아웃도어 센터폴은 방충 기능을 갖춘 '바실 팬츠'를 내놨다. 이 제품은 특수 방충 가공 처리를 해 모기·나방·개미·진드기 등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세련된 카고 디자인으로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다. 스판 기능성 원단을 사용해 활동성도 뛰어나다.

머렐 역시 해충 기피 소재를 활용한 아웃도어 팬츠 '마이포'를 선보였다. 슬림한 핏과 7부 기장으로 감각적인 트레킹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엠리밋은 트렌치코트 스타일의 '워커 레인코트'로 아웃도어족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드라이엣지 소재가 땀은 밖으로 배출하고 외부의 습기는 효과적으로 막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 특히 국화류의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방충 성분이 해충의 움직임을 둔화시켜 접근을 방지하는 '안티 버그' 처리를 해 안전한 야외활동을 돕는다.

아이더의 안티 버그 재킷 '코만치'와 '오스카'는 국화류에서 추출한 천연 방충 성분 '퍼메트린'을 섬유에 주입해 해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야외활동 시에는 해충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방충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연인 속옷 선물?… "6개월 후에"

브라프라닷컴 설문

연인끼리 속옷 선물을 하려면 만난지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속옷전문쇼핑몰 브라프라닷컴은 자사 회원 364명에게 연인 간의 속옷 선물 시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개월에서 1년이 적당하다(4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다음으로 100일 기념(31%), 한달(11%), 만난 즉시(8%), 결혼 이후(6%)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연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최악의 속옷을 묻는 질문에는 낡고 늘어진 오래된 속옷(75%)이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 아래 짝짝이 속옷(17%), 과도한 몸매보정 속옷(6%), 나이에 맞지 않은 속옷(3%)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속옷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서로를 충분히 알고 난 이후 선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폭염엔 '포카리스웨트'가 딱!

탈수증·열사병 등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 포카리스웨트가 최근 폭염에 의한 탈수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열질환에 따른 수분 섭취를 강조했다.

회사는 여름철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이나 이온음료 등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착용하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실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땀으로 잃어버린 수분을 제때 보충하지 못해 나타나는 탈수증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 몸에는 약 0.9%의 염분을 포함한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탈수로 인한 갈증에는 순수한 물보다는 나트륨·칼륨·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음료가 수분의 흡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황재용기자

앵그리버드 주얼리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지하1층에서 주얼리 브랜드 스톤헨지가 '앵그리버드 스페셜 에디션' 출시행사를 가졌다. '앵그리 버드(Angry Birds)'의 캐릭터들과 콜라보레이션한 이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앵그리버드 캐릭터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레드·척·밤·블루·피그 5가지 제품을 한정 수량 출시한다. 소비자 가격은 각각 98만원. 21일부터 롯데백화점 본점과 전국 16개 스톤헨지 주요 매장과 면세점에서 판매한다. /손진영기자 son@

다리 붓고 아프다면 '정맥순환장애' 의심

동국제약 '정맥순환장애 바로 알리기 캠페인'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이 회사는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를 홍보하기 위해 '2014 대국민 정맥순환장애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벌였다. 최근 서울 청계천에서 정맥순환장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사도 가졌다.

캠페인은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을 맞아 하지정맥류를 포함한 정맥순환장애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모델들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영국 근위병' 분장을 하고 연기를 펼쳐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정맥순환장애 증상이 빈번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했다. 또 청계천을 지나던 시민들은 동상과 근위병으로 분장한 모델들과 사진을 찍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시민에게 정맥순환장애에 대한 정보 책자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체조동작이 그려진 마그네틱을 선물로 제공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정맥순환장애를 방치할 경우 다리 부위의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환이 올 수 있다. 이번 행사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인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맥순환장애는 성인의 절반 정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중년 질환으로 발·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는 정맥의 탄력 향상과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항산화 효과 등으로 정맥순환장애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비핸즈카드 제공(제품번호 : 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 … 올해도 '축의금 품앗이' 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 늘어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경원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지, 해는 넘어가지… 걱정이 크죠."

하미숙씨(56세 · 서초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내년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하태경씨(61세 · 용산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딸은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 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결혼은 내가 원하는 상대와 해야죠"

대기업 연구원 서승필씨(30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 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랭키닷컴 2011, 2012, 2013 기준〉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4년 연속 및 '대한민국 중소 ·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 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 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입증받기도 했다. 또한 가연은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을 총망라한 제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사 미혼직원을 위한 결혼지원 서비스 및 '미팅파티' 를 통해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서울 테헤란로에는 만남부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17층 전관을

※**랭키닷컴** – 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 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결혼 서비스에 특화 시킨 '가연타워' 가 있다.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는 업계 최대규모의 단일 사옥은 가연의 '고객중심 경영철학'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인연을 찾는 일이죠"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연결혼정보㈜박영빈 팀장은 '행복한 결혼은 노력과 의지의 결과이며, 결혼정보회사도 노력의 주요한 일환' 이라고 말한다.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요즘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부터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성격부터 가치관 등 다양한 기준들을 세워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일반 직장인부터 전문직, 공무원 등 결혼정보회사 역시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흔히 직업 좋고 연봉 높은 분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찾는 만큼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배우

▲ 가연결혼정보(주) 박영빈 팀장

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결혼정보회사의 존재 이유는 회원님께서 원하는, 그리고 회원님께 꼭 맞는 배우자를 찾아 인연을 맺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삶과 가정에 결혼을 통해 행복을 불어넣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성혼 커플들을 볼 때마다 커플매니저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결혼도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전문적인 커플매니저가 도움을 드린다 해도 스스로가 준비가 되고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가짐만 굳건하시다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아름다운 인연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더위에 지친 피부엔 '야채팩' 네이처리퍼블릭이 21일 서울 명동 월드점에서 10가지 유기농 야채수를 함유한 '숨쉬는 야채팩'을 선보이고 있다. 브로콜리·파프리카·토마토·양배추 등 유기농 야채수가 피부에 수분과 탄력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제공

'커플 아이템' 찾아보세요

젊다면 비치웨어로, 자녀와는 액세서리가 좋아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를 준비하며 일찌감치 국내외 숙박과 항공권 예매를 마친 이들에게 떠나기 전 마지막 고민이 바로 짐 챙기기다.

여름 휴가를 혼자 보내는 사람은 드물 터. 가족·커플 단위로 패션 센스는 챙기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아이템을 찾는 이들에게 알맞은 몇가지를 제안한다.

◆젊은 커플 '과감하고 독특하게'

젊은 커플의 경우 무더위를 피해 영화관·백화점 등 시원한 실내 데이트를 선호하지만 휴가나 방학에는 바다·워터파크 등 물이 있는 곳으로 떠나기 마련이다.

지난달 국내에 상륙한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69SLAM(식스나인슬램·사진)은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커플 비치웨어와 수영복·바람막이·모자·액세서리 등 여름 패키지상품은 젊은 커플을 위한 비치 아이템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자극적이고 과감한 패턴, 독특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감의 옷은 젊은 층을 겨냥한 브랜드 콘셉트에 맞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레저와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고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젊은 커플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브랜드 관계자는 기대했다.

◆부자·모녀 간은 액세서리로

아이가 출연하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한자녀 가정의 증가로 부모와 아이가 같은 패션을 즐기는 아기자기한 가족룩이 인기다.

물놀이를 계획 중인 가족들을 위해 네이티브는 제퍼슨 슈즈를 선보였다. 이 신발은 캔버스 스타일로 평상복은 물론 수영복 등 다양한 옷에 어울리며 신발 전체가 EVA소재로 돼 있어 착용 시 유연성이 좋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가벼운 무게와 통기성, 물 빠짐 기능이 탁월해 아쿠아 슈즈의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색상과 사이즈도 다양해 가족 모두가 편하게 신을 수 있다.

디스커버리는 아빠와 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배낭을 선보였다. 성인용은 840D 원단을 이용,

내구성이 뛰어나고 내부에 랩탑 케이스가 탑재돼 노트북 수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동용은 산행 시 눈에 잘 띌 수 있게 산뜻한 색감을 적용해 멀리서도 식별을 쉽게 했다.

예쁘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여자아이의 특성상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얼리 액세서리가 인기다. 주얼리 브랜드 꼼에스타에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캐릭터 목걸이를 선보였다. 엄마는 단아하고 심플한 눈꽃 목걸이를 착용해 아이와 함께 한다면 센스있는 모녀커플이 될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화장품, 온라인 후기 보고 충동구매

지인 추천보다 더 신뢰

화장품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전 사용 후기를 반드시 검색해보며, 그 결과에 따라 제품을 충동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인의 추천보다 온라인 후기를 더욱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리아나화장품 생활문화연구센터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10~5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뷰티 정보 경로와 신뢰성'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주로 검색하는 뷰티 키워드는 ▲제품 사용 후기(57.3%)가 가장 많았고, ▲할인(26.7%) ▲트렌드(9.7%) ▲신제품 출시(6%) 등이 뒤를 이었다.

신뢰하는 뷰티정보의 경로는 ▲온라인 후기(43.7%) ▲지인 추천(19.3%) ▲TV 뷰티프로그램(15.7%) ▲매장 판매원의 설명(8.3%) 순이었다.

뷰티정보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약간 높다(55%)고 답변했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25.7%) ▲아주 높다(18.9%) ▲별로 미치지 않는다(1%) ▲전혀 미치지 않다(0.3%)였다.

특히 응답자의 71.7%가 뷰티 정보를 접한 뒤 충동구매 한 적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충동구매 제품은 주로 색조메이크업 제품(28.8%)이며 ▲클렌징·스킨케어 제품(22.3%)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22.3%)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윤경화 코리아나 세니떼 뷰티샵 전략팀 팀장은 "온라인 후기를 보고 제품을 충동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화장품 업체들은 주력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자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

"샤워 후 조금씩 여러 번 뿌리세요"

남성 향수, 장마철엔 사용량 절반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 탓에 불쾌지수는 오르고 기분은 축 처지기 쉬운 여름이다. 지친 여름에 활력을 더해줄 향수를 뿌려보는 건 어떨까.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여름철 센스있는 남성을 위한 향수 사용팁을 공개했다.

무더운 여름 땀 냄새 등 불쾌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향수를 뿌리지 말고 조금씩 나눠 뿌려 은은한 향이 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강한 햇빛과 땀이 오히려 향수 향을 변질시켜 자칫하면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장마철에는 기압이 낮아져 향이 오래 가기 때문에 평소 사용량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 향수는 샤워 후 몸을 청결히 하고 뿌리는 게 좋다.

◆여름에는 시트러스 계열 추천

덥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지나치게 강한 향은 자제하고 상쾌하고 싱그러운 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감귤향이라고도 부르는 상쾌한 시트러스(Citrus) 계열의 향은 오렌지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과 레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의 신선함을 느끼게 해 준다. 물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싱그러운 아쿠아&오셔닉(Aqua&Oceanic) 계열의 향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기분을 밝게 해줄 수 있어 여름 향수로 제격이다.

에르메네질도 제냐 향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숙 부장은 "손목에 향수를 분사한 후 10분 정도 지났을 때 자신의 체취와 섞인 향을 맡은 후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metro entertainment

“코믹 연기 하면 깜짝 놀랄 걸요?”

‘닥터 이방인’ 북한 요원 **박 해 준**

“세련된 북한 말 연습…요즘은 육아가 취미”

박해준(38)은 뚜렷한 이목구비로 강한 인상을 주는 배우다. 사채업자, 불량남 등 어두운 역할을 주로 했다. 그러나 그는 “무섭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멜로나 코믹 연기를 하면 깜짝 놀라실 걸요?”라고 반전 매력을 보였다. 또 “열린 시각”을 배우로서의 매력으로 꼽으며 “박해준과 맡은 역할 간 케미를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영화 ‘화이’와 SBS ‘닥터이방인’에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 “‘박훈이~’ 대사, 화제 될 줄 몰랐어요”

‘닥터이방인’의 진혁 PD는 영화 ‘화이’에 출연한 박해준을 눈 여겨 봤다. “‘화이’에서의 역할과 포스터 이미지를 마음에 들어 했고 연락이 왔어요. 차진수 역은 진혁 PD가 신경 쓰던 인물이었고 지난해 12월 첫 미팅 후 캐스팅이 확정됐죠. 출연 확정이 빨리 된 편이에요.”

올 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다. 대역을 제외하고는 이종석·진세연·박해준 세 명이 주요 출연진이었다.

“두 배우와는 헝가리에서 오랜 기간 함께 있었으니까 연기 호흡을 맞추는 데 수월했어요. 이종석과 진세연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카메라 앞에 선 시간은 훨씬 많죠. 후배라기 보다는 다른 분야의 선배예요. 주연이 극을 끌고 가는 리듬을 조연이 잘 타고 들어가면 좋은 장면이 나와요.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도 저를 편하게 대했죠.”

박해준의 “박훈이~”라는 대사는 시청자 사이에서 화제였다. “반응이 좋을 줄 예상하지 못했어요. 북한 여자 장교 출신인 백경윤 북한어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차진수를 멋있는 북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했죠. 세련된 북한 말, 매력적인 단어, 냉정하고 단호한 북한 말. 인물에 따라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죠.”

차진수는 이종석과 진세연에게 총을 쏘고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대본은 캐릭터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과서예요. 차진수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 그는 당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과업 달성을 위해 살아 왔죠. 이미 송재희(진세연)와 남한으로 왔을 때부터 이방인, 도망자였고 과업을 달성한다 해도 북으로 돌아가진 못했을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린 차진수에겐 죽음이 최선이었죠. 다만 시청자가 차진수의 감정을 느끼기엔 진행이 급격하게 이뤄지긴 했어요.”

◆ “학점 미달로 퇴학…제대 후 재입학”

그는 “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며 “어떻게 하다 보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게 됐다”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셰익스피어 이름만 알았지 대본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 말을 들어 보면 말끔하게 생겨서 뽑혔다고 해요. (웃음) 대학 입학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로 왔죠. 대학 가면 무조건 노는 줄 알았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적응을 못했고 학점 미달로 잘렸죠. 제대 후 00학번으로 같은 학교에 재입학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연기에 대해 이미 고민했던 무언가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제대 후 학교 다니면서 실험극 동아리를 아는 형과 만들었죠. 퍼포먼스적인 건데 이상한 작품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 형은 지금 구청 예술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닥터이방인’은 박해준이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한 첫 드라마다. 포털사이트에선 검색되지 않지만 그는 이전부터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출연해 왔다.

“고향 친구들, 가족, 군 동기, 학교 동기들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류 매체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인 걸 고려하면 ‘나도 TV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죠. 그렇다고 ‘드라마를 꼭 해야지’는 아니었어요.”

8개월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다. “요즘은 애 보는 게 취미예요. 드라마 촬영 끝나고 공허해서 영화를 무조건 보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요. 아내는 대학 동기예요. 이름은 오유진이고 저보다 배우를 먼저 시작했죠. 7~8년 연애했어요. 아내가 지금은 쉬고 있는데 재능이 아까우니 육아를 어느 정도 해 놓으면 다시 연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 쉬려고요. (웃음)”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김아람

건강미 섹시함으로 돌아온 씨스타

1년 2개월 만에 새 앨범

연기와 솔로 앨범, 음악 방송 M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걸그룹 씨스타가 1년 2개월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씨스타는 21일 미니 앨범 '터치 앤 무브'의 타이틀곡 '터치 마이 보디'를 비롯해 전곡을 공개하고 가요계 복귀를 알렸다. 이날 씨스타는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두 번째 미니앨범 '터치 앤 무브' 발매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을 선보였다.

케이윌과 정기고가 사회를 맡은 이날 쇼케이스에서 씨스타는 타이틀곡 '터치 마이 보디'를 비롯해 '오케이 고' '나쁜 손' 등의 무대도 최초로 공개했다. 오랜 만에 그룹으로 복귀한 소감을 밝혔고, 뮤직비디오와 앨범 메이킹 영상도 공개했다.

씨스타는 '터치 마이 보디' 무대에서 특유의 관능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것은 물론 발랄한 매력까지 발산했다. 엉덩이를 튕기는 안무 포인트와 발랄한 섹시함으로 구성된 군무로 자유로움을 표현했다. 퍼포먼스와 함께 가창력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여름을 겨냥한 만큼 핫팬츠와 검정색 민소매 상의를 결합한 비치 패션으로 건강미를 강조했다.

그동안 용감한형제·이단옆차기 등의 작곡가와 작업했던 씨스타는 이번 앨범에서 라도·최규성과 호흡을 맞췄다. 다솜은 "기존에 (작업)하던 분들이 아니라서 참신하고 독특한 곡이 나온 것 같다"고 자평했다.

'터치 마이 보디'와 관련해 효린은 "뮤직비디오에도 여름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비비드 톤의 컬러가 들어간 의상을 많이 사용했다"며 "달달하고 상큼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소유는 "개인 스케줄에 전념하다 오랜만에 뭉쳤다. 팀워크가 더욱 좋아졌다"며 "이번 무대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컴백을 앞두고 데뷔 후 처음으로 노란색으로 염색한 보라는 "그동안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며 "이번 앨범 활동을 앞두고 다이어트와 이미지 변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씨스타가 21일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새앨범 '터치 앤 무브' 쇼케이스에 참석해 한층 물오른 미모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손진영기자 son@

비, 김태희 따라 천주교 세례

소속사 결혼 임박설은 부인

가수 겸 배우 비(사진 왼쪽)가 연인인 배우 김태희(오른쪽)를 따라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연예계에 따르면 비는 최근 경기도 남한산성순교성지 성당에서 김태희와 가족,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김태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비는 종교 없이 지내왔다.

비가 세례를 받은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결혼 준비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태희의 가족이 세례식에 함께 참석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비의 소속사에 따르면 비가 최근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전부터 계획한 일이며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례를 받았다고 결혼이 임박했다는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비와 김태희는 지난해 1월 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 연인으로 사랑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고깃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나오는 등 변함없이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엑소·씨엔블루 대륙 동시출격 성료

주말 상하이·베이징 공연서 관중몰이

국내 가수들이 중국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K-팝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인기 아이돌 엑소와 밴드 씨엔블루가 동시에 출격했다. 아이돌 그룹 엑소는 2만 관객들을 '중독' 시키며 상하이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데뷔 후 첫 단독 콘서트 투어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 #1 - 더 로스트 플래닛'을 펼치고 있는 엑소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공연을 했다. 2시간여 동안 31곡의 무대로 2만 관객을 열광시키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엑소는 이 날 데뷔곡 '마마'로 공연을 시작해 '중독' '으르렁' '럭키' '러브러브러브' 등 히트곡과 앨범 수록곡 무대, 멤버들의 각기 다른 개성이 담긴 개별 무대 등 엑소만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현지 팬들을 매료시켰다.

씨엔블루는 19일 베이징 국가 체육관에서 단독 라이브 콘서트 '2014 씨엔블루 라이브 캔트 스톱'을 열어 9000여 관객을 운집시켰다. 씨엔블루는 지난해 월드투어 '블루문'에 이은 1년여 만의 베이징 단독 공연으로 현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한류 대표 밴드로서 더욱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씨엔블루는 이날 9000여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 '캔트 스톱' '독한 사랑' '아임 쏘리' 등의 자작곡과 '외톨이야' '직감' '사랑빛' 등 히트곡을 포함 총 22곡을 올 라이브로 선사하며 중국 팬들을 매료시켰다.

한편 엑소는 오는 27일 중국 창사에서, 씨엔블루는 26~27일 대만과 다음달 9일 말레이시아에서 콘서트를 이어간다. /양성운기자 ysw@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엑소 콘서트장 전경(위)과 씨엔블루 베이징 공연.

데뷔 2주년 크레용팝 이색 축하

대형 전광판 광고·해외 팬클럽선 쌀 화환

걸그룹 크레용팝(엘린·소율·금미·초아·웨이)의 데뷔 2주년을 기념해 팬의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19일 데뷔해 올해 2주년을 맞은 크레용팝에게 팬은 지난 18일부터 열흘 동안 직접 만든 광고물을 서울 홍대입구역 사거리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 송출 중이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민들이 촬영해 올린 광고 영상에는 '새터데이 나이트'부터 최근 활동곡 '어이'까지 그동안 크레용팝이 불렀던 곡들의 뮤직비디오가 순차적으로 흘러나온 후 "크레용팝 데뷔 2주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뿐만 아니다. 크레용팝 팬들은 전국 곳곳에서 게릴라 공연을 통해 응원을 펼치는가 하면 데뷔 2주년 기념 영상회를 기획하거나 캠핑을 떠나는 등 자체적인 행사를 마련해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외 팬클럽에서 크레용팝 이름 앞으로 보내주신 축하 쌀 화환은 그동안 적립된 쌀과 함께 향후 어려운 이웃과 국내외 빈곤 아이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레이디 가가의 북미 투어 콘서트 '아트레이브: 더 아트팝 볼'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크레용팝은 라스베이거스와 LA에서 공연한 뒤 오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이민호 글로벌 투어 재시동

서울·베이징·도쿄 등서 개최…2009년 시작 러브콜 쏟아져

한류스타 이민호가 국내외 팬들을 위한 글로벌 투어 공연에 나선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1일 "이민호가 오는 9월 투어를 통해 팬과 만날 계획"이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팬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졌던 러브콜에 대한 답례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민호의 2014 글로벌 투어는 '리부트 이민호'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며 공연 기획과 제작은 유포리아 서울이 담당한다.

'리부트 이민호'는 리부트, 즉 컴퓨터를 재시동하듯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다. '이민호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담아 오는 9월 서울을 시작으로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의 주요 도시에서 선보이게 된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민호 글로벌 투어'는 가는 곳마다 운집하는 수많은 인파와 미디어의 플래시 세례가 가득했다. 지난해 8개 도시에서 진행된 글로벌 투어에는 총 5만2000여 명의 관객이 몰리기도 했다.

가수도 아닌 배우가 이처럼 대규모의 해외 공연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매진시키는 건 이례적이다. 배우 인지도에 따른 관객 동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거니와 2시간 이상의 공연무대를 채워줄 다양한 레퍼토리의 창출도 쉽지 않았지만 이민호는 매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유포리아 서울 관계자는 "이제껏 선보였던 공연과는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의 무대가 펼쳐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류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민호는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은 언제나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며 감사와 기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민호는 올 겨울 개봉 예정인 유하 감독의 영화 '강남블루스' 촬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HOT PHOTO

파격 화보 전효성 전효성이 남성 매거진 긱 표지모델로 파격적인 화보를 촬영했다. '바이크 위에서 몸으로 쓴 시, 전효성'이라는 제목의 화보에서 전효성은 검은색 란제리 스타일의 원피스 차림으로 바이크 위에 아슬아슬하게 누워 뇌쇄적인 포즈를 취했다. 연기 활동에 한창인 전효성은 다음달 시크릿 멤버로 가요계에 돌아온다.

/유순호기자 suno@

인피니트 '백', 액션영화 같은 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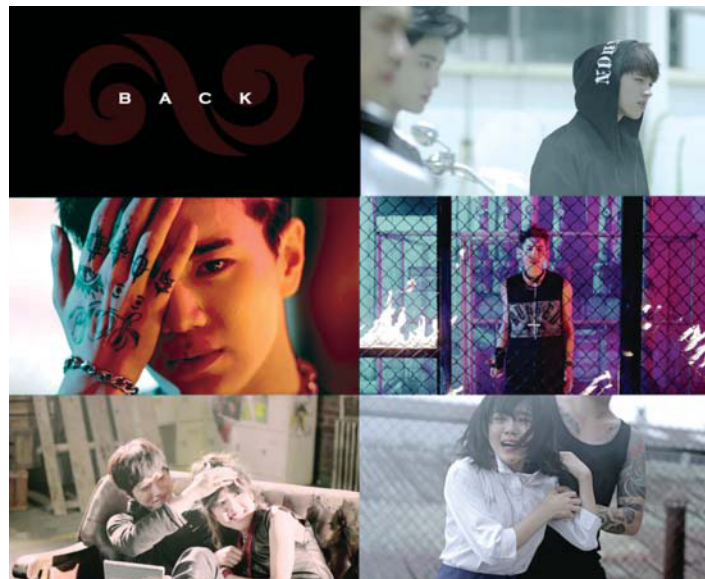
멤버들 호쾌한 연기·강력한 안무 볼만

그룹 인피니트가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 곡 '백'의 뮤직비디오를 21일 공개했다.

인피니트는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비 백'의 타이틀 곡 '백'의 뮤직비디오 풀버전을 공식 홈페이지(www.ifnt7.com)에 공개해 팬심을 흔들고 있다.

이날 공개된 '백'의 뮤직비디오는 마치 액션 영화를 방불케하는 인피니트 멤버들의 호쾌한 연기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여왕의 교실' '우아한 거짓말' 등에 출연한 배우 김향기가 멤버 성규의 동생이자 엘을 짝사랑하는 역할로 등장해 열연했다.

특히 '백'이 발라드로 시작돼 오케스트라 팝 댄스 음악으로 변주되는 순간 터지는 인피니트의 강력한 군무는 이 뮤직비디오의 백미로 꼽힌다.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 측은 "뮤직비디오를 위해 이달 초 인천에서 이틀간 밤을 새워 촬영했다. 액션 장면이 많아 멤버들이 2주 전부터 액션스쿨에서 틈틈이 준비를 했고, 촬영 날에도 체력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음악의 드라마틱한 감정선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인피니트 '비 백' 타이틀곡 '백' 뮤직비디오.

한편 인피니트는 21일 '백'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데 이어 22일 '백'을 비롯한 앨범의 모든 수록곡 음원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한다. /양성운기자

왼쪽부터 '드래곤 길들이기2'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허큘리스'. /CJ엔터테인먼트·소니 픽쳐스 릴리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코리아·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여름 극장가 할리우드발 강풍

'드래곤…' '가디언즈…' '허큘리스' 국내 대작과 흥행 경쟁

한국영화가 또 다시 침체의 늪에 빠졌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영화 점유율은 43.0%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할리우드 영화는 극장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겨울왕국'을 필두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엣지 오브 투모로우' 등이 상반기 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극장가 흥행을 이끌었다.

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영화는 올 여름 '군도: 민란의 시대'를 필두로 '명량' '해적-바다로 간 산적' '해무' 등 대작들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드래곤 길들이기2'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허큘리스' 등 화제작들을 내세워 더욱 치열한 흥행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23일 개봉하는 '드래곤 길들이기2'는 여름방학 시즌을 겨냥한 애니메이션들 중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슈렉' '쿵푸팬더' 시리즈를 제작한 드림웍스가 20주년을 기념해 야심차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2010년 개봉해 전국 260만 관객을 동원한 '드래곤 길들이기'의 속편으로 4년 동안 성장한 주인공 히컵과 드래곤 투슬리스의 변함없는 우정을 그렸다. 주인공들의 보다 성숙해진 드라마, 전편을 능가하는 플라잉 액션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31일 개봉 예정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올 여름 극장가의 숨은 복병이다. '어벤져스' 이후 국내에서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이기 때문이다. 자칭 우주의 무법자인 '스타로드' 피터 퀼, 암살자 가모라, 싸움꾼 드랙스, 현상금 사냥꾼 로켓과 그루트 등이 우주의 위기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마블 스튜디오가 선보이는 첫 SF장르 작품이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마블 히어로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 7일에는 '허큘리스'가 개봉한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을 시대극으로 그려낸 그래픽 노블 '허큘리스: 트라키안 워즈'를 영화화했다. '러시 아워' 시리즈와 '엑스맨: 최후의 전쟁'을 연출한 브렛 래트너 감독의 신작으로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 드웨인 존슨이 주인공 허큘리스를 연기했다. 블록버스터다운 액션의 볼거리와 함께 유쾌함과 카리스마를 지닌 인간적인 영웅 '허큘리스'의 탄생을 선보인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타짜2' 버라이어티한 재미"

강형철 감독 속편 연출 전작과 다른 매력

'과속스캔들' '써니'를 연출한 흥행 감독 강형철 감독이 3년 만의 신작 '타짜-신의 손'(이하 '타짜2')으로 극장가를 찾는다.

'타짜2'는 삼촌 고니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승부욕을 보이던 대길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타짜들의 세계에 겁 없이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허영만 화백의 만화 '타짜' 시리즈 중 2부인 '타짜-신의 손'을 영화화했다.

지난 2006년 최동훈 감독이 연출한 '타짜'는 전국 684만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을 기록했다. 전작에 이어 메가폰을 잡은 만큼 강형철 감독의 부담감도 컸을 터.

강 감독은 "데뷔 이전부터 최동훈 감독의 '타짜'를 굉장히 좋아했다. 이 시리즈의 속편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품어왔다. 원작 시리즈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른 매력의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강 감독은 "8년 만에 귀환하는 아귀와 고광렬을 볼 수 있는 반가움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타짜2' 만의 색깔이 담긴 버라이어티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차별점을 소개했다.

최 감독도 "관객들 마음을 움직이는 탄탄한 스토리를 선보여온 강형철 감독에 의해 '타짜2'가 만들어진다니 한 명의 관객으로 굉장히 기대된다"고 신뢰를 드러냈다.

전작에 이어 아귀 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윤석은 "강형철 감독은 리더로서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다. 자신이 원하는 장면을 비범하게 만들어내는 탁월한 감독"이라고 칭찬했다. '타짜2'는 오는 9월 초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액션의 추억' 형님들의 귀환

스탤론·슈워제네거 등 '익스펜더블3'

왕년의 액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블록버스터 '익스펜더블3'가 오는 8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익스펜더블3'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 모인 익스펜더블 팀의 대장 바니(실베스터 스탤론)가 자신의 팀을 파괴하려는 초창기 멤버 코나드(멜 깁슨)의 음모를 알고 팀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전쟁을 벌인다는 내용의 영화.

전작들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실베스터 스탤론, 아놀드 슈왈제네거, 제이슨 스타뎀, 이연걸 등 액션스타들이 이번에도 총출동했다. 여기에 해리슨 포드, 안토니오 반데라스, 멜 깁슨 등이 새롭게 가세했다.

'익스펜더블' 시리즈는 지난 2010년 실베스턴 스탤론의 연출로 첫 선을 보였다. 왕년의 액션 스타들을 한 자리에 모은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익스펜더블3'는 '레드 힐'을 연출한 호주 출신 신예 패트릭 휴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장병호기자

'해무' 7인 캐릭터 포스터 공개

봉준호 감독이 기획과 제작을 맡은 영화 '해무'(감독 심성보)가 출연진 7명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해무'는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한 여섯 명의 선원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해무 속에서 밀항자들을 실어나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린다는 내용의 영화.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실제 뱃사람처럼 변신한 김윤석, 박유천, 이희준, 문성근, 김상호, 유승목, 그리고 조선족 처녀 홍매 역의 한예리의 영화 속 모습을 담았다. 선장 철주(김윤석)를 비롯해 인정 많고 사연 많은 기관장 완호(문성근), 행동파 갑판장 호영(김상호), 거친 성격의 롤러수 경구(유승목), 욕구에 충실한 선원 창욱(이희준), 순박한 막내 선원 동식(박유천) 등 여섯 선원과 소식이 끊긴 오빠를 찾아 밀항에 오른 홍매(한예리)까지 각 캐릭터의 특징이 잘 담겨있다.

심성보 감독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안개가 몰려오는 설정에서 캐릭터들은 각자의 욕망을 표출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캐릭터의 힘을 강조했다.

제작자 봉준호도 "'해무'는 배우들의 영화다. 훌륭한 배우들일 뿐 아니라 뛰어난 앙상블을 보인다. 배우들 얼굴만 봐도 러닝타임이 훌쩍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무'는 다음달 13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우리가 그렇다

대학교수 A씨는 오래 전 임파선암을 앓았다. 다행히 조기 발견됐고, 적지 않은 시간과 수술을 거쳐야 했지만 이겨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안타까운 점은 완치 판정을 받아도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소위 '리스트'에 올라 있어 보험사들로부터 거절되거나 특별 심사(대부분 거절되지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다.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기에 누구보다 대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고 격리시키는데 익숙하다.

직장인 B씨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볼까 싶어 체크카드 사용을 늘렸다. 하지만 신용등급의 하락을 경험했다. 신용등급 평가 기관에서는 B씨가 신용카드로 외상거래를 하고 이를 상환하는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았는데 체크카드 사용으로 이 가산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그렇다.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참여하도록 유도해 놓고, 그 일이 가져올 후유증은 나 몰라라 하는데 선수다.

경영자 C씨는 직원들과의 회식 후 밤 10시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에 출차를 못 했다. 불법주차 차량에는 연락처가 없었다. 경찰을 불러 차적 조회를 했지만 신고된 번호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주차이니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고, 구청에 연락해서 견인 조치하라고 알려줬다. C씨는 견인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과 밤에 구청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우리가 그렇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고 나서는 문제 해결 여부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그렇다. 나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거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일에는 목숨을 건다. 그것이 불법이든 편법이든 상관없다. 당장 눈에 띄거나 문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 남의 이익이나 권리에 시간, 돈, 마음 등 내 소유의 어떤 것이 쓰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피해나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개인주의 대신 슬픈 이기주의를 택하는 사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9	5			7
					3	1	2	
	5	8	3		1			
6	4						3	2
			8		2	6	5	
	6	9	4					
8			1	7			4	

9	5			3				
7	2				1		5	9
8		1	9					
		6		4		5		
					3	9		1
1	7		6				2	4
				2			8	7

스도쿠 정답

1	2	4	6	9	5	3	8	7
5	9	6	7	8	3	1	2	4
3	8	7	2	1	4	9	6	5
2	5	8	3	6	1	4	7	9
6	4	1	9	5	7	8	3	2
9	7	3	8	4	2	6	5	1
4	1	2	5	3	6	7	9	8
7	6	9	4	2	8	5	1	3
8	3	5	1	7	9	2	4	6

9	5	4	8	3	2	7	1	6
6	1	8	5	7	9	2	4	3
7	2	3	4	6	1	8	5	9
8	3	1	9	5	6	4	7	2
2	9	6	1	4	7	5	3	8
5	4	7	2	8	3	9	6	1
1	7	5	6	9	8	3	2	4
3	8	2	7	1	4	6	9	5
4	6	9	3	2	5	1	8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노점상 아들, 포목점 동업 해도 될까요 내년에 같이하면 10년간 번창합니다

Q 복바치 남자 78년 2월 11일 양력 아침

사주 속으로가 하루에 한 개씩 상담해주므로 환자가 자기의 증상을 자세히 말해 줌으로서 의사가 더욱 좋은 진단을 내려줄 것 같아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의 아들사주는 올해37세에 양력 2월 11일 아침 밥 먹고 나서 태어났는데 학교 때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속을 많이 태웠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변덕이 심한데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지금은 노점상에 권리금을 주고 얻어서 분식을 팔고 있는데 별로 잘 안됩니다. 일전에 포목점을 하는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 왔었으나 장사를 해도 되는지요. 건강하세요.

A 어려서 운이 비견겁재(比肩劫財)가 들어와서 골목대장입니다. 매일 노느라 정신없었을 것이며 부모님들이 학교에 불려가는 날도 많았을 것인데 이런 점이 차후 아드님을 대성시키는 기본이 됩니다. 생일주(生日柱:태어난 생일)가 갑목(甲木:큰 나무)으로 득령(자기 계절을 얻음)하고 목(木)의 기운이 신강(身强)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 하고 재물을 쥘 수 있습니다. 쌍목위림(雙木爲林:나무가 숲을 이룸)으로 울창한 숲의 기상인데 1~2년 뒤인 38세가 되면서 재성(재물)이 용신(수호신)이라 운세가 바뀌게 됩니다. 48세 이후 음식으로 재물이 탄탄해지는 것으로 포목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5년이 지나면서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운세가 상승을 하니 47세까지는 동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청룡'의 기질이므로 변화가 심하고 축재하는 재주가 있으나 지략이 부족하여 속전속패(速戰速敗)하게 되니 그 부족함을 동업자에게서 나눠 찾으면 됩니다. 동업을 하면 고생하고 인연이 변하기 쉽다고들 하는데 서로 간에 양보의 미덕이 없어서 발생되는 일이니 38세에서 시작하고 10년간 번창을 이룬 후 그다음은 그 다음에 상담하십시오. 장사를 한 것은 잘한 것이며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었다면 교만하여 발전을 못 이루게 되니 지금고생으로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주변에서 동업자를 만날 때 74년생 호랑이띠는 불길하고 입춘절(立春節)에 태어나 병정화(丙丁火)가 도움이 됩니다. 미(未: 양띠)나 토끼띠, 개띠와 인연이 되므로 동업을 할 때 사주를 봐서 천을귀인(天乙貴人;하늘의 도움)인 오행을 서로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22일 (음 6월 2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기다리던 소식 문 앞 당도~. **60년생** 익숙한 일에도 주의 필요하다. **72년생** 개인능력보단 조직 위해 희생할 것. **84년생** 구직자는 새 일이 생겨 설렌다.

49년생 구두쇠는 조롱거리가 된다. **61년생**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하라. **73년생** 마음을 잃어버리면 원칙 흔들린다. **85년생** 어른의 충고 들어 확실한 미래 구하라.

50년생 영웅도 밉상이 될 수도~. **62년생** 자신의 마음 컨트롤이 중요하다. **74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구나. **86년생** 사랑싸움은 연인을 다시 하나로 만든다.

51년생 자녀 일에 아쉬움 남는다. **63년생** 속이 상해도 성숙한 모습 보여주라. **75년생** 상대 공격은 빨리 되받아쳐야 효과 본다. **87년생** 조직위해 개인 욕심 자제할 것.

52년생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64년생** 환자는 며칠 사이 굉장히 좋아진다. **76년생**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라. **88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과 조우한다.

53년생 작은 근심거리가 생긴다. **65년생** 메시지를 전할 땐 확실히 전하라. **77년생** 사과할 때 알맹이 빠지면 역풍 맞는다. **89년생** 허깨비 이상은 빨리 접어라

42년생 집안일은 입장표명 분명히 할 것. **54년생** 명분에 집착하면 옴짝달싹 못한다. **6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꼭 잡아라. **78년생** 사랑에 빠졌는데 외롭다.

43년생 서열에 매달리면 운신 폭 좁다. **55년생** 배우자가 피부로 느끼도록 배려하라. **67년생** 꿈꾸니 쫓아다니는 후배가 든든하다. **79년생** 과음으로 인한 탈 조심~.

44년생 자녀 자랑도 자리 봐가며 하라. **56년생** 자신감이 절반의 성공이다. **68년생** 어려움 있어도 희망은 버리지 말라. **80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웃음이 찾아온다.

45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서 바쁘다. **57년생** 자존심 버리고 대세 따르면 편안~. **69년생** 지난 영광에 집착하면 전진 못한다. **81년생** 움직일 때가 아니니 이직은 금물~.

46년생 내가 다 한다는 생각 버려라. **58년생** 삶에 활력소가 될 일이 생긴다. **70년생** 생각의 폭을 넓혀 적극 움직여라. **82년생** 남을 통해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47년생 마음을 움직이면 몸은 따라온다. **59년생** 힘든 시간 보내고 달콤한 휴식~. **71년생** 소문을 믿으면 심신만 피곤해 진다. **83년생** 뜻을 이루려면 명분에 연연하지 말라.

리디아 고가 LPGA 마라톤 클래식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9개월 10억 번 무서운 17세

리디아 고 프로 전향 후 LPGA 2승
최연소 상금 100만 달러 기록 달성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가 프로 전향 9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승을 했다.

세계랭킹 2위인 리디아 고는 2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 골프클럽(파71·6512야드)에서 열린 마라톤 클래식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로 6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5위(9언더파 204타)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리디아 고는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로 역전 우승했다.

2012년과 2013년 캐나다 여자오픈을 2연패 하는 등 아마추어 최강으로 군림하던 리디아 고는 지난해 10월 프로에 데뷔해 6개월 만인 올해 4월 스윙잉스커츠 클래식에서 프로 신분으로 첫 승을 신고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21만 달러(약 2억1600만원)를 받은 그는 LPGA 투어 사상 최연소(17세 2개월) 상금 100만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다. 이 부문 종전 기록은 18세 7개월 만에 100만 달러를 돌파한 렉시 톰프슨(미국)이 보유했다.

리디아 고는 전날까지 자신보다 한 타 앞선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리디아 고에 한 타 뒤져 있던 유소연은 16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은 데 이어 17번 홀(파5)에서 7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14언더파로 공동 선두가 됐다.

그러나 리디아 고는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다시 한 타 앞섰고, 유소연은 18번 홀에서 2m 정도의 버디 퍼트에 실패해 아쉽게 한 타 차 준우승에 머물렀다.

리디아 고와 최종 라운드 중반까지 우승 경쟁을 벌인 크리스티 커(미국)는 12언더파 272타로 단독 3위를 차지했고, 말레이시아 국적의 켈리 탄이 11언더파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뛰어들면 금 따는 '마린보이'

박태환(25·인천시청)이 인천아시안게임을 1개월여 앞두고 출전한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에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박태환은 21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4분23초21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혼영 400m는 수영을 한 뒤 처음 나서는 종목이다.

경기 전만 해도 완주가 목표라며 몸을 낮췄던 박태환은 경기가 시작되자 무서운 질주 본능을 드러냈다. 접영 100m 구간을 4위(59초21)로 통과한 그는 배영을 끝낸 후에도 4위(2분08초81)로 선두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가장 약한 평영 구간에서는 5위(3분26초12)까지 떨어지며 1위 정원용(3분23초54)과 2초58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100m를 남겨두고 자유형으로 영법을 바꾸자 박태환의 세계적인 기량이 빛을 발했다. 50m를 남겨두고 3명을 따라잡은 그는 마지막 50m 구간에서 결국 1위 자리를 빼앗았다.

박태환 /연합뉴스

이로써 박태환은 자유형 100m·200m·400m, 개인혼영 200m·400m, 단체전인 계영 800m 등 출전한 여섯 종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6관왕이 됐다. 이 중 자유형 200m 결승에서는 올 시즌 세계랭킹 1위 기록(1분45초25)을 세웠고, 주 종목이 아닌 개인혼영 200m에서는 한국 신기록(2분00초31)을 갈아치웠다.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자유형 200m·400m·1500m 금메달,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는 자유형 100m·200m·400m 금메달을 따며 2회 연속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절정의 컨디션으로 인천 대회를 맞이하게 됐다.

박태환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30일 다시 호주 브리즈번으로 건너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마지막 훈련에 들어간다. 다음달 말에는 호주에서 열리는 팬퍼시픽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순호기자

오타니와 한승혁의 제구력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일본 니혼햄의 오타니 쇼헤이는 고졸 2년차 투수로 만 20세에 불과하다. 올해 9승1패, 방어율 2.23을 기록하고 있다. 리그 2위 기록이자 팀 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다. 지난 주 올스타전에서 162km를 던져 일본인 최고기록을 세웠다.

그는 볼만 빠른 투수였다. 고교시절 지역대회에서 160km를 찍으며 관심을 받았지만 제구력이 들쭉날쭉했다. 작년 시즌 경기당 4사·사구가 6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올해는 4사구가 3개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빠른 볼을 던진다는 것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제구력이 부족한 빠른 투수라면 가치는 높지 않다. 빠른 볼 투수들이 제구력 때문에 도태되는 경우는 숱하다. 제구력은 고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오타니는 제구력을 갖춘 광속구 투수로 진화했다.

하체 이동만 죽도록 훈련해 상체가 먼저 나오는 버릇을 고쳤다. 볼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도록 또 훈련했다. 하체강화훈련과 별도로 체중 7kg을 불렸다. 볼을 놓는 지점을 포수쪽으로 최대한 끌고 나왔고 안정된 폼을 만들었다. 제구력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좋아졌다.

오타니의 성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고유의 육성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니혼햄은 오타니가 입단하자 전담 투수코치와 트레이닝 코치를 붙여 일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오타니도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코치진의 의견을 충실히 따랐다. 오타니 자신의 엄청난 노력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타니는 다르빗슈 류(텍사스 레인저스)와 다나카 마사히로(뉴욕 양키스)의 뒤를 잇는 일본의 에이스로 주목 받고 있다. 벌써부터 2017년 WBC 대회 에이스로 거론된다. 오타니를 보노라니 빠른 볼을 갖고도 제구력 때문에 고전하는 KIA 한승혁이 문득 떠오른다. 그는 제구력을 잡을 수 있을까?

/OSEN 야구전문기자

'뱀직구' 살아야 삼성 선두 안심

22일 스타트 후반기 성적 임창용 활약에 달려

선두 삼성 라이온즈의 부진과 꼴찌 한화 이글스의 상승세 속에 2014 프로야구가 22일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전반기 막판 4연패를 당한 삼성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4위 롯데 자이언츠와 원정 3연전(22~24일)을 치르고, 포항에서 3위 NC 다이노스와 홈 3연전(25~27일)을 이어간다. 상대 전적에서 6승 3패, 6승 2패로 두 팀에 모두 앞서 있지만 주전들의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왼쪽 갈비뼈 미세골절 부상을 당한 최형우는 올스타전 휴식기 동안 일본 요코하마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 일단 선발 라인업에는 이름을 올렸다. 지난 11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임창용(사진)은 후반기 시작과 함께 1군에 복귀한다. 7월에 출전한 4경기에서 2⅔이닝 8피안타 7실점(평균자책점 23.63)으로 최악의 부진을 하면서 팀도 흔들렸다.

타율 0.340·22홈런·62타점의 최형우가 타선의 중심을 잡고, 임창용이 부동의 마무리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후반기 선두 수성 여부가 결정된다.

전반기 불펜 평균자책점 5.95로 이 부문 8위에 올랐던 한화는 마지막 3경기에서 연승하는 동안 불펜진이 10⅔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한화는 홈에서 선두권 도약을 노리는 NC와 4강 진입을 목표로 하는 6위 KIA 타이거즈와 차례대로 경기한다.

후반기에는 '심판 합의 판정'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 시행했던 홈런·파울 판정을 포함해 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 플레이 때 아웃·세이프,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몸에 맞는 공 등 합의 판정의 대상이 5개로 늘어난다. /유순호기자